

광역권 산업클러스터 구축

지식경제부는 광역 중심의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'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'을 5+2 광역체제로 전면 개편한다.

〈'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'이란?〉

◆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·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

* 해외사례 : 미국 실리콘벨리(IT), 스웨덴 시스타(정보통신), 일본 도요타(자동차) 등

◆ 그간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, 정부정책이 단지조성 및 입주촉진에 집중되어 산학연 연계, R&D 역량 강화가 필요

* 전체 제조업 수출의 75%, 생산 60%, 고용 40%(한국산업단지공단, '07.12)

정부는 '05년부터 전국 12개 주요 산업단지를 선정, 산학연간 교류 활성화, R&D 지원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.

산단내 특화업종·기술별로 기업, 대학,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협의체(총 54개)를 구성하여 세미나, 포럼, 과제발굴 등 총 1만5천여건의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하였으며, 네트워킹을 통해 발굴된 기업

애로과제는 전문가 멘토링,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, 공동기술개발, 마케팅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하였다.

특히, 본 클러스터사업은 기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기업(직원 50인 이하)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적기에 활용하는 「수요자 맞춤형」 사업 구조로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.

다만, 일부 산업단지*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성과가 외부로 확산되기 어렵고,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·연구소·대학 등과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.

* 총 742개 산단(국가 35, 일반 322, 농공 385) 중 사업 대상은 12개(국가 9, 일반 2, 농공 1)에 불과

이에 따라, 사업대상 산업단지를 기존 12개에서 5+2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150개로 대폭 늘리고, 산학연간 연계·협력 시스템도 광역단위로 확대·통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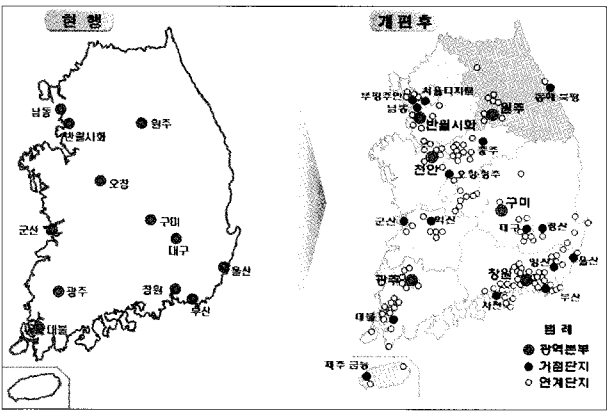
150개 산단은 규모와 업종별 분포를 감안, 25개 거점단지*와 125개 연계단지**로 구분하되, 거점단지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(이사장 박봉규) 조직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.

* 거점단지 : 소관 산학연협의체 운영, 단위과제 발굴·지원 등 핵심 역할

** 연계단지 : 해당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여 클러스터 성장을 뒷받침

* 12개 대상단지 중 2개(원주, 오창)는 타 지역지원기관 (충북TP, 원주의료기기재단)에서 위탁 수행해 왔음

〈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대상단지 확대 〉



또한, 효율적 사업지원을 위해 주관기관을 산단공으로 일원화*하고, 산단공 지역조직도 수도권 3개 지역본부(서울, 경인, 서부)를 1개 본부(수도권)로 통합하고 충청, 강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1본사 6본부 19지사를 광역형태로 전환한다.

'10년 663억원이 집중 투입되는 본 사업은 산단간, 광역권간 연계·협력* 과제 위주로 추진되며, 해외 선진클러스터와의 기술교류, 투자상담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.

* 자동차 관련 「수도권(반월시화)-호남(군산)-대경(성서)-동남(울산)」 연계 등

기업지원서비스 11개 분야도 ① 생산기술사업화, ② 제조기술효율화, ③ 기술 및 경영지원, ④ 토털 마케팅, ⑤ 현장맞춤형 교육 등 5개로 체계화·단순화하고 광역위원회, 선도산업지원단, 지자체, TP 등 유관 지원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, 산업단지내 국내외 우수기업 및 지식서비스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기존 업체의 첨단업종화를 유도하는 등 지식서비스 육성사업도 병행하여 시

〈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 개편방향 〉

광역권	현행	
	본사, 지역본부	지역사무소(지사)
수도권	본사	-
	서울본부(서울 디지털)	원주, 동해
	경인본부(남동)	주안, 파주, 부평
	서부본부(반월)	시화, 천안, 평택, 당진
대경권	중부본부(구미)	대구, 충청(청주)
동남권	동남본부(창원)	부산, 울산, 사천
호남권	서남본부(광주)	대불, 군산, 여수, 광양, 익산
충청권	-	-
강원권	-	-
제주권	-	-



개편	
본사, 지역본부	지역사무소(지사)*
본사(서울 디지털)	-
수도권본부(반월시화)	남동, 주안·부평
대경본부(구미)	대구, 경산
동남본부(창원)	부산, 울산, 사천, 양산, 함안
호남본부(광주)	대불, 군산, 여수, 광양, 익산
충청본부(천안)	아산, 청주, 충주
강원본부(원주)	동해
-	제주(호남본부에서 관장)

* 산단 규모 및 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, 일부 지역사무소(지사) 변동 가능

**산업단지내 국내외
우수기업 및
지식서비스기업의
입주를 촉진**

향후 광역권 산학연 네트워크가 정착단계에 다르면 민간 주도의 자생적 클러스터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며, 내년부터 거점단지(25개) 중 일부(3~5개)는 자생적 클러스터 운영 모델*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.

행한다.

향후 광역권 산학연 네트워크가 정착단계에 다르면 민간 주도의 자생적 클러스터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며, 내년부터 거점단지(25개) 중 일부(3~5개)는 자생적 클러스터 운영 모델*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.

* 회원사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비(단지당 평균 2억원) 충당 등

자생적 클러스터는 정부지원이 정보교류와 과제발굴 등 네트워킹 분야에 집중되고 발굴된 과제는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.

지식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, 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년 4월부

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정부는 금번 사업 개편이 산학연 연계·협력 활성화,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특히, 광역경제권 중심의 新지역산업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